

나주시, 평생교육으로 집수리 전문 인력 양성 나선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활용교육' 수업이 개강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실천형 평생학습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공동체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평생교육 모델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집수리 활용교육'을 지난 8일 나주시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에서 개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활 수리와 주거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했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 기술교육과 자격 취득 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

질적인 생활 기술 습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과정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수리 기술과 주거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론 교육보다 실습 비중을 높여 학습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기술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 수요자들이 집수리 기술과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 봉사활동이나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문수 기자

담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독려 캠페인 전개

화순군, 집중안전점검 부기관장 현장점검 실시

담양군은 지난 6일 영산강문화공원과 담양시장, 다미담예술클럽 일원에서 열린 '어울림장터'와 '월담' 행사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30일로 예정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을 앞두고 미사용에 따른 국민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담양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주요 상권 일원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며 지원금 사용 방법과 사용기한을 안내했으며, 공직자와 관계 기관, 상인회 등과 함께 지역 상점 이용과 골목상권 방문을 독려했다. /최종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5월 29일 도곡면 소재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부기관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호범 부군수와 김강산 병원장을 비롯한 화순군 관계 공무원, 안전자문단 등 2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반은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재난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문수 기자

영광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유기질비료 적기 공급 위해 신청 시기 앞당겨 6~7월 접수 운영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비.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지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7년 사업부터는 신청 시기가 기존 11월에서 6~7월로 변경

됐다. 이는 농업인이 영농 시작 전 필요한 비료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농지를 기준으로 필요한 비료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비료는 ▲혼합유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속유기질비료 2종이다. 지원 금액은 20kg 포대 기준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비료 종류, 품질 등급, 수량, 업체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물량은 자격 검증 및 공급계획 확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중 희망 시기에 맞춰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진행되어 향후 원자재 가격과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가격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경률 기자

장성 청년 농업인, 일본 '스마트 농업' 성공 비결습득

청년 스마트팜 대학원생 15명 4박 5일 일정으로 후쿠오카 방문

장성군 청년 스마트팜 대학원 교육생 15명이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연수에서 교육생들은 농업박람회(J-ARGI) 참관에 이어 △일본농협(JA) 직관점 △사가 토미타 농원 △'푸의 딸기 농장' △구마모토 농업연수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장성군 청년 스마트팜 대학원에서 습득한 교육 내용을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점검하고, 최신 농업기술 동향도 파악했다. 농작물 첨단 재배 기술과 환경 제어, 데이터 기반 경영기술 등 스마트팜 영농기술 전반을 폭넓게 경험하고 익히는 기회가 제공돼 교육생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일본지역 청년 농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농업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망도 구축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국외 연수



청년 스마트팜 대학원 교육생들이 최근 일본 후쿠오카로 연수를 다녀왔다. /장성군 제공

의 성과가 농업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생 개개인을 맞춤형 지원하는 등 꾸준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 농업기술을 지역 스마트팜 현장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생들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 농업인과 구축한 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 교환과 협력 기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성군 스마트팜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광종 기자

곡성군 온라인 종합 쇼핑몰 "곡성몰" **꼼꼼한 생산자 & 알뜰한 소비자의 만남** "우리는 곡성몰입니다." 곡성몰 검색 곡성몰에서 신선한 농특산물 구매하세요 <https://gokseongmall.com>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 받아주세요.